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5일 (음력 1월 29일) 화요일

“강제징용 배상 본격화”...미쓰비시 압류 돌입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압류절차에 돌입한다. 미쓰비시·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전범기업 측이 대화를 거부함에

피해자 변호인단 “전범기업이 대화 거부...강제집행 예정”

“7월 광주세계수영대회 스폰서 참여...철회·불매 운동”

따라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1월18일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도쿄를 방문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관련 계획을 재차 통보 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앞으로 한·일 간 신뢰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있어 중

요한 분기점 임을 감안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어렵게 주어진 신뢰구축과 화해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단은 미쓰비시 측이 끝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러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광주세계수영대회 주요 스폰서로 미쓰비시 계열사가 참여했다”며 “스폰서 철회 운동과 더불어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해결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3월 국회 개회예에 대해 “불과아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을 미루려고 명분으로 삼았던 북미정상회담과 전담대회가 모두 끝난 만큼 양당은 무조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번갈아 보이콧하느라 국회가 열리지 못한 기간이 꽤 채워 두 달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소집 최대 쟁점 사안인 손혜원 의원 의혹 규명작업과 5·18 망년 등 국회 쟁쟁한 쟁점 의안들에 대한 정국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이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해 중재인까지 내놔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 열려야 하겠다’는 양당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전남 일제강제징용 노동자像(상) 건립 추진한다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와 민주노총 전남본부(본부장 윤부식)는 4일 오후 양대 노총의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전국서 7번째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해 건립

전 11시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3.1자주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일제강점기 침략전쟁

때 강제징용 동원되어 비극적 삶을 살았던 선배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제강제징용(동원) 문제에 대한 내외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 참여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상징물 건립을 통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가 기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비방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용산), 인천(부평공원), 제주(제주항), 경남(창원), 울산(울산대공원), 부산 등 6곳에 노동자상을 건립하였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전남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총 건립비용은 1억4천만원중 양대노총에서 7천만원을 조합원 모금으로 충당하고 기타 시민사회단체 전남도민 모금운동을 통해 조달기로 했다.

건립 장소는 목포시로 하되 목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노동자상 작품 공모는 4월 하순까지 전남·광주작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설치는 2019년 11월 13일(전태일 열사 기일)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남규 기자

‘비상저감 조치’ 광주·전남

서부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광주·전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 또 다시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광주 시 전역에도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PM10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는 광주 173 μ g/m³, 전남 서부권 157 μ g/m³로 기록됐다.

같은 시각 PM2.5 미세먼지 주의보의 시간당 평균 농도는 광주 124 μ g/m³, 전남 서부권 104 μ g/m³로 나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미세먼지(PM10)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μ g/m³ 이상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μ g/m³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중국에서 서해상으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 대기정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됐다.

광주시는 또 민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3곳에 작업시간의 조정 또는 단축을 권고했으며,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진공 흡입차·살수차 운행 횟수를 확대했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무조건 국회로 돌아와야...

내가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하듯이...

나도 국회내 해결사 노릇을...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